

- 주요 뉴스: 12월 FOMC 의사록, 인플레이션 완화 시 추가 금리 인하 다만 내부 이견도 상당
 - 러시아, 평화 협상에서 강경 자세 시사. 우크라이나는 미군 주둔 가능성 논의
 - 중국, 내년 소비재 보상 판매에 625억위안 지원 위안화 가치는 2년 반 만에 최고
 - OPEC+ 관계자, 1월 회의에서 원유 증산의 일시 중단 유지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연준의 금리인하가 기대를 하회할 수 있다는 평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2월 FOMC 의사록 결과, 일부 기술주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 및 방산 관련주 강세 등으로 0.6%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10월 주택부문 지표 등으로 1주일 만에 최고치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FOMC 내 금리인하 신중론 부각 등이 반영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3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36.9원(스왑포인트 감소 시 1438.5원, 0.03% 하락). 한국 CDS 강보합

	12/30일	12/29일	전일대비		12/30일	12/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96.2	6,905.7	-0.14%	국채 금리 10y	미국	4.12%	4.11%	+1bp
	유럽	592.78	589.25	+0.60%		독일	2.86%	2.83%	+3bp
	중국	3,965.1	3,965.3	+0.00%		영국	4.50%	4.49%	+1bp
	일본	50,339	50,527	-0.37%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4,214.2	4,220.6	-0.15%		중국	44bp	43bp	+1bp
환율	달러지수	98.23	98.04	+0.20%	위험 지표	EMBI+	-	271	-
	유로화	1.1748	1.1773	-0.21%		VIX	14.33	14.20	+0.92%
	엔화	156.41	156.06	-0.22%	WTI유	57.95	58.08	-0.22%	
	위안화	6.9958	7.0060	+0.15%	원자재	구리	574.6	549.1	+4.64%
	원화	1,439.0	1,429.8	-0.64%		금	4,339.5	4,332.4	+0.1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12월 FOMC 의사록, 인플레이션 완화 시 추가 금리 인하. 다만 내부 이견도 상당
 -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의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지속될 경우 금리의 추가 인하가 적절하다고 발언. 그러나 금리 인하를 지지했던 위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이번 결정이 매우 미묘한 균형 상태에 있거나, 금리 유지를 지지할 수도 있었다는 의견 피력
 - 이는 금리 인하의 속도 및 시기와 관련하여 연준 내 상당한 이견이 있음을 시사. 실제로 일부 위원들은 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전에 경제 여건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 12월 FOMC 당시 공개된 점도표 역시 향후 금리인하 전망에 대한 위원들 간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반영
 - 아울러 위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가운데 어느 것이 경제에 더 큰 위협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 다수의 위원들은 고용 악화 방지에 초점을 두었으나, 일부 위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가능성을 우려
 - 한편, 위원들은 당시 연방정부 섯다운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주요 경제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향후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일부에서는 연준 내 다양한 의견에 크게 놀랄 필요는 없으며, 양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럽다고 평가(WSI)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 전월비 상승세 강화. 여타 주택가격 지수도 양호
 - 한편, 10월 FHFA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비 0.4% 올라 전월(-0.1%) 및 예상치(0.1%) 상회. 이번 결과는 주택매입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 10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역시 전년동월비 1.3% 올라 예상치(1.1%) 대비 높은 수준. 특히 전월비 기준으로 3개월 연속 주택가격 상승이 이어졌으며, 이에 일부에서는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평가
 - 시카고 연은은 미국 실업률이 12월에 4.6%를 기록했다고 추산. 이는 정부 당국의 공식 11월 실업률과 동일한 수치. 이번 시카고 연은의 실업률은 고용 및 해고의 속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의미. 한편, 정부의 공식 12월 실업률은 1/9일에 발표되며, 시장에서는 4.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러시아, 평화 협상에서 강경 자세 시사. 우크라이나는 미군 주둔 가능성 논의

- 러시아 크렘린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통령 관저를 공격했다고 비난.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한 평화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 반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의한 안전 보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자국 내 미군 주둔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동시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협상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첨언

■ 중국, 내년 소비재 보상 판매에 625억위안 지원. 위안화 가치는 2년 반 만에 최고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성명에서 내년 소비재 보상 판매를 위해 625억위안 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발표. 다만, 이는 1차 발표로 최종 지원 규모는 아직 미확정. 금년에는 3000억위안 규모의 보조금이 배정. 한편, 당국은 반도체 공장 증설 시 장비의 50% 이상을 국산으로 사용하도록 요구
- 이날 역내 외환시장에서 심리적 지지선으로 인식되던 1달러당 7위안이 강하게 하향 돌파되었고, 이에 위안화 가치는 2년 반 만에 최고. 역외시장에서도 환율이 1달러당 7위안 하회. 최근 당국의 경계 목소리에도 위안화 강세는 지속

■ 일본 총리, 적극재정을 통한 경제 선순환 유도할 방침.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강조

- 다카이치 총리는 적극재정을 통해 기업의 수익 개선 및 근로자 소득 증가가 발생하는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발언. 또한 책임 있는 재정으로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것이라고 부연. 현실에서 이와 같은 성장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힘이 필요하다고 첨언

■ OPEC+ 관계자, 1월 회의에서 원유 증산의 일시 중단 유지할 전망

- OPEC+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들은 1월 예정된 회의에서 내년 1/4분기 원유 증산의 일시 중단을 선택한 11월 결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편. 이는 전세계적인 공급 과잉 및 그에 따른 유가 하락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31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2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중국 국가통계국 12월 제조업 및 서비스업 PMI·레이팅독 제조업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26년 미국 경제, 감세정책 및 금리인하 등으로 성장 가속화 예상 - The Economist
(America's economy looks set to accelerate)

 - 내년 미국 경제는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을 소지. 이는 감세법안 혜택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 금년 경제 성장률이 1.9%로 추정되는 가운데, 감세법안은 GDP의 0.3%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
 - 또한, 親트럼프 연준 의장 임명 등으로 내년 연준은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가능성 다분. 이는 AI 버블 논란 등으로 제기된 주가 하락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소지.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내년 S&P500지수의 9% 상승을 전망하는데, 이 또한 가계자산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 등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내년 미국 채권 투자 수익, 금년에 비해 저조할 것으로 예상 - Reuters
(US bonds shined in 2025 but returns could lose altitude next year)

 - 핵심 채권 지수(US Core Bond TR YSD index, 만기가 1년 이상인 투자 등급 회사채·국채)의 올해 수익률은 약 7.3%로 '20년 이후 최고. 이는 연준의 75bp 금리인하와 양호한 기업 이익 등으로 회사채 스프레드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 하지만 '26년 수익은 다음의 이유로 다소 떨어질 가능성
 - 첫째, 내년 금리인하는 단기채권 금리를 내릴 수 있으나, 경기 활성화 등으로 장기채권 금리가 상승하며 전체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 미칠 소지. 둘째, 감세 및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국채발행 증가 등으로 장기채권 금리 상승을 유도. 셋째, AI 관련 회사채 발행 증가는 신용 스프레드 확대 초래 등
- 중국 경제, 내년 경기부양은 금리인하가 아닌 재정정책이 주도할 전망 - 블룸버그
(PBOC's Leanest Year for Easing Since 2021 Defies Wall Street)

 - 연초 중국에서 비교적 큰 폭의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이 예상. 하지만, 금리인하는 단 한차례의 10bp 인하로 종료. 이는 수출과 증시 상황이 양호했기 때문. 또한 정책금리(7일 역레포)가 1.4%로 낮은 수준이기에 추가 금리인하 여력도 제한적
 - 아울러 올해 통화정책은 금리보다 유동성 공급에 초점에 맞춰진 것으로 평가(T. Rowe Price). 구체적으로 증시 지원, 국채 발행, 재대출(특정분야 저금리 대출) 등이 이에 포함. 한편, 내년에 금리인하에 대한 긴급성 부족과 저금리로 인한 일본화 우려(Goldman Sachs) 등으로 경기부양에는 재정정책이 지배적 역할을 이행할 것으로 전망(SC)

- **아시아 일부 통화, 연말에 기존 추세의 전환 신호를 발신 - 블룸버그**
(Two Currency Bets in Asia Flash Warning Signs as Year-End Nears)
 - 연말에 접어들면서 아시아 일부 통화의 변동성이 증폭. 최근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 하지만, 이후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헤지 조치 기대 등이 반영되며 반등에 성공
 - 반면 태국 바트화 가치는 그 동안 상승을 이어갔으나, 최근에는 이에 따른 여파로 수출 우려가 제기되고, 중앙은행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약세 전환. 시장에서는 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이 취약하여 당분간 바트화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한국 원화와 태국 바트화의 상반된 환율 움직임은 향후 아시아 통화 가치가 무역 여건과 중앙은행의 개입 여부 등에 좌우될 수 있음을 반영. 아울러 연말 아시아 외환시장의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
- **미국 트럼프, 대법원이 관세에 위법 판결 내려도 새로운 관세 부과 예상 - Financial Times**
(Donald Trump expected to impose new levies if Supreme Court strikes down tariffs)
- **미국 달러화 약세, 내년에도 금리인하 등으로 지속될 소지 - Financial Times**
(Dollar on track for steepest annual drop for almost a decade)
- **풍부한 시장 유동성, 투자자 판단에 따라 득과 실이 병존 - Financial Times**
(The liquidity curse for investors)
- **미국과 EU, 디지털 상거래가 내년 무역긴장 심화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 - 블룸버그**
(US, EU Tensions on Digital Freedoms Set to Flare Up in 2026)
- **글로벌 다국적 기업, 각국의 경제적 민족주의 등이 수익성 저해할 우려 - The Economist**
(Patriotism tests loom for big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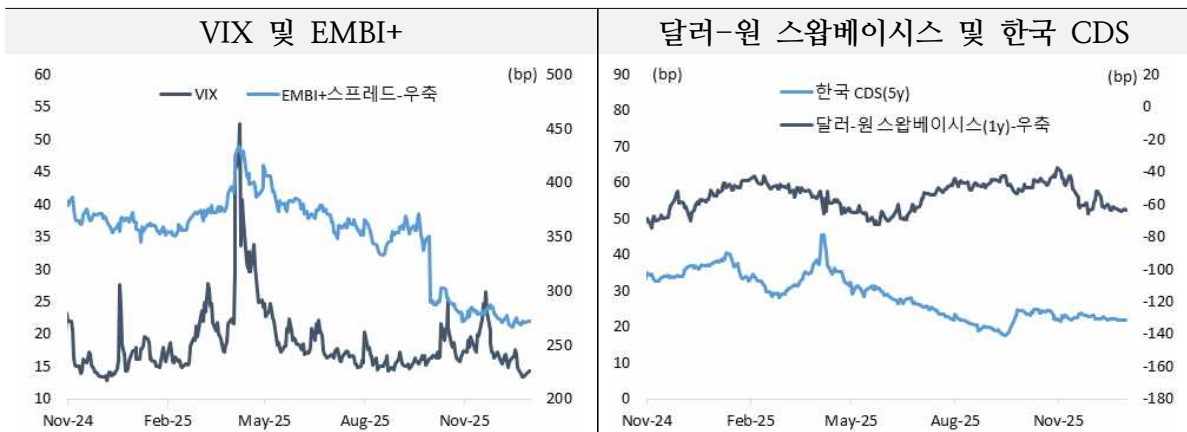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